

쓰던 배터리 다시 써 만든 ‘전기차 충전소’

국내 첫 배터리 재사용 기반

제주지역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충전소가 운영되면서 전기차 충고·폐배터리 후방산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센터 대강당과 제주발달테마공원 주차장에서 ‘e-고광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충전스테이션’ 개소식이 열렸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인 BMW코리아(주), (주)케이씨에스글로벌, 중앙제어(주)와 제주지역 기업인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등 4개 회사가 협력해 추진한 것이다.

BMW코리아 등 기업 4곳 제주에 ‘충전스테이션’ 개소 재사용 배터리로 전기 저장·공급… 후방산업 속도 기대

BMW코리아는 재사용 배터리 확보를 위해 BMW i3를 운전하고 있는 제주시민 중 10명을 선정해 1.5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이 커진 신품 배터리로 무상 업그레이드했다. 케이씨에스글로벌은 회수한 재사용 배터리를 전용 컨테이너에 탑재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저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중앙제어는 충전 스테이션에 필요한 고속충전기 3기와 일반충전기 5기를 제공했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충전 스테이션을 공공 충전인프라로 운영하게 되는 역할을 맡았다.

전기저장 장치는 평소 구좌읍에서 생산된 풍력에너지를 저장하고, 저장한 전기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전기저장 장치에는 실제 BMW i3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이용된다.

특히 충전 스테이션은 전기에너지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해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전기저장장치는 전력공급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반 충전소가 운

영되면서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논의됐던 전기차 충고·폐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후방산업(재사용 사업)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안동우 제주시 정무부지사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 달성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e-고광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확대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며,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장은 국내 전기차 판매사가 하지 않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보여준 것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시 다금바리와 고수온기에 성장이 빠른 대왕바리를 교잡해 ‘대왕자바리’ 인공수정란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대왕바리. 사진=제주도 제공

다금바리 장점 쪽 뺀 ‘대왕자바리’ 나왔다

도, 대왕바리와 교잡 통해 인공수정란 생산에 성공 적응 수온폭 넓고 성장 빨라 “양식 경제성 등 분석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은 고부가가치가 높고 토착 어종인 제주시 다금바리(자바리)와 고수온기에 성장이 빠른 ‘대왕바리’ 교잡을 통해 ‘대왕자바리’ 인공수정란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왕자바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어종인 다금바리와 100kg까지 성장이 가능한 대왕바리의 교잡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다. 수온 적응범위가 넓은 다금바리와 성장이 빠른 대왕바리의 장점을 갖고 있다.

대왕자바리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국내 다금바리 자원 감소와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

식하는 대왕바리 어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수정란 생산 기술이 확립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산업적 양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해 대왕바리 20kg급 어미 40마리의 사육관리를 해 오면서 성호르몬 투여를 통해 암컷을 수컷으로 전환하는 융성화(성전환) 유도에 성공해 정자를 얻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다금바리 암컷에서 난을 확보해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대왕바리 등의 바리와 어류는 ‘자성선속형 자용동체’로 모든 개체가 암컷으로 태어나 일부 개체가 수컷으로 성전환되기 때문에 수컷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한 셈이다.

앞으로 연구원은 치어 생산 단계를 거쳐 2kg급 전후의 출하 크기까지 수온별 성장실험을 진행하면서 양식 경제성 분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주민불편 던 ‘중형 재활용센터’ 곳곳에

서귀포시, 연말까지 6곳 추가 규모 줄이고 배출 편의 유지

서귀포시는 중산간 및 소규모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정읍 상모2리 ▷남원읍 신흥1리 ▷안덕면 사계리 ▷표선면 세화2리 ▷정방동 ▷대천동(용흥마을) 등 6곳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남원읍 위미3리와 표선면 성읍1리(2개소)에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중형 재활용도움센터는 중산간 및 소규모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면적은 비교적 작은 규모(30㎡)지만 내부에는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근무자 배치(유무인 복합 운영) ▷이동 재설치 가능 구조 ▷경사지붕 설치 ▷바닥 구배 시설 ▷음식물 배출장소 및 쓰레기 배출 대기장 분리 설치 등 이용자의 배출 편의는 그대로 확보했다.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3201)로 연락하면 된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앞으로는 전 읍면동의 시민이 편리



서귀포시가 표선면 성읍1리에 설치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시는 지난 6월 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마무리해 이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하고 위생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탐라광장 경관조명 새단장

제주시는 지난 8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3개소(탐라·북수구·산포광장)에 대해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제주시는 이들 광장을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탐라광장 야간경관조명등 5개소(10등) ▷북성교 교량 포인트조명(LED) 98개소 ▷산포광장 라인조명 108개소를 보강했다. 고대르기자

“행정구역 조정을”… 인구 늘며 요청 쇄도

이도2 등 제주시 동 5곳 총 43개 통·반 신설 요구 “검토 후 조례 개정 건의”

제주시는 최근 인구 수 지속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과대 통·반을 조정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9년 행정구역(통·반

)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권 분리·이동 지역 또는 가구 수 불균형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과대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조사 결과 5개 동(이도2동·봉개동·아라동·노형동·외도동)에서 9개 통·34개반 신설 요청을 했다. 공동주

택 신축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세대 과밀이 주된 사유로서 효율적인 통·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의,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대르기자

“불법 숙박영업 강력 처분” 서귀포시, 미신고 10곳 고발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으로 47개 업소를 단속해 이 중 미신고 숙박업소 10곳을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 동과 2개 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품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 소점점TF팀은 2018년 8월 28일 신설 이후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태윤기자

2019년 제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도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구인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제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을 개설하기 위한 기업 및 교육훈련기관 대상 수요조사 진행!!!

☞ 도내 기업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요구 능력 조사

☞ 도내 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 교육수요 조사

☞ 도내 기업 인사 및 현업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조사

☞ 제주도내 직업훈련을 실시·공급중인 모든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급 조사

☞ 교육훈련기관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조사

도내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L 757-2164, FAX 757-2168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